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4일 01시 06분



목차

목차	2
덕양6리	3
마을유래(□□)	3
지명유래(□□□□)	3

대포1리	대포2리	대포3리	대포4리	덕양1리
덕양2리	덕양3리	덕양4리	덕양5리	덕양6리
관기1리	관기2리	관기3리	복산1리	복산2리
복산3리	복산4리	복산5리	복산6리	봉두1리
봉두2리	봉두3리	사곡1리	사곡2리	사곡3리
사곡4리	죽림(1~17리)	현천1리	현천2리	현천3리

마을유래(☒☒)

이 마을은 원래 양지골이나 음달골로도 불리워 왔었는데 햇빛이 잘 들어오는 북쪽 산비탈이 양지골이며 햇빛이 잘들지 않는 남쪽 산비탈이 음지골이다.

지금의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자리가 원래 갯가였을 때 이 중승골은 간신이 바다에서 벗어난 옥지 땅이어서 동네 일대가 모두 들판이었다. 그래서 대포 간척지가 조성된 뒤 이성백(☒☒☒)을 비롯한 10여 가구가 농토를 따라 이마을 북쪽 산비탈에 자리를 잡았다. 그런데 일제때에 들어와 일본인 니시사와(☒☒)가 유일하게 북쪽 음달에 이주해와 터를 잡고 과수원을 경영 하면서 살았는데 덕양2구는 일제때부터 상가(☒☒)로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 이곳 중승골은 옛 그대로 10여호가 산비탈에 집을 짓고 드문드문 살았다.

그런데 1964년 윤상준(☒☒☒)이 이곳 서쪽 산기슭에 여천고등공민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통학로(☒☒☒)로 마을 한가운데 도로를 내면서부터 제법 사람사는 마을다운 느낌이 들게 되었다. 그 뒤 1969년 삼일면 월내리에 호남정유공장이 들어서면서 철거 이주민 50호가 한꺼번에 집단 이주해오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눈을 집터로 다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이 중승골이 갑자기 주택가로 화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반듯반듯한 현대식 건물들이 뽕뽕하게 들어차 정말 여기가 옛날의 중승골이었던가 하고 다시 쳐다보게 된다. 그런데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하게된 것은 몇 년전에 경성빌라와 소라맨션이란 아파트 두동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 1997.1.1분구되어 현재 덕양6구가 되었다.

지명유래(☒☒☒☒)

이 마을은 하세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로변에서 서쪽으로 움푹 들어간 골짜기로서 오래전부터 중승골(☒☒☒)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. 그것은 옛날 이곳에 중승암(☒☒☒)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유물이나 유적은 물론 아무런 기록도 발견할수 없으므로 후학들의 더 깊은 연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.

Yeosu Web Contents

